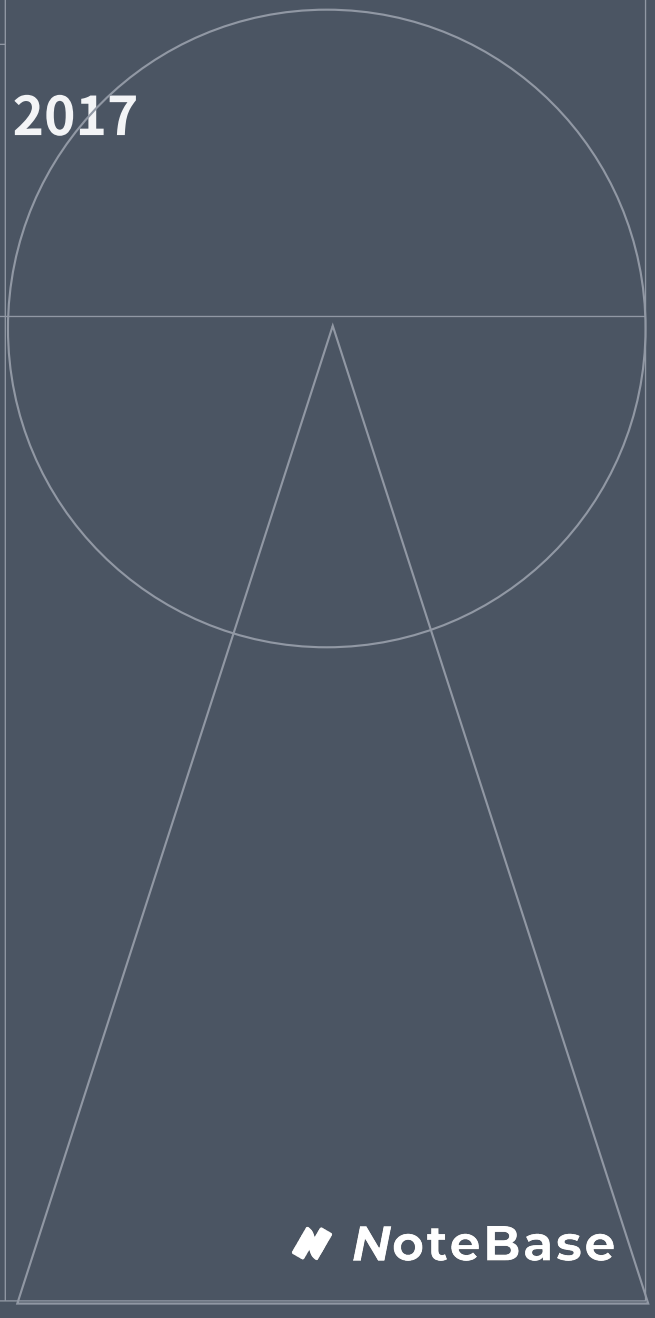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7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7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너 말 한번 잘 했다.

② 값이 얼만지 한번 물어보세요.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

④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횟수를 나타내는 '한 번'과 어떤 행동을 강조하거나 시험 삼아 해 보는 뜻의 부사 '한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 번'은 수 관형사 '한'과 의존 명사 '번'이 결합하여 횟수 한 차례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한번'은 어떤 행동을 해 보거나 그 행동을 강조하는 뜻의 부사이므로 붙여 쓴다. '밖에'는 앞말에 붙으므로 횟수 표현은 '한 번밖에'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너 말 한번 잘했다'의 '한번'은 '참으로, 아주'처럼 말을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붙여 쓴다.
② O: '한번 물어보다'는 시험 삼아 물어 본다는 뜻이므로 부사 '한번'을 붙여 쓴다.
③ X: '일주일에 한 차례'라는 횟수를 나타내므로 '한 번'으로 띄어 써야 한다. 틀린 표현은 '한번밖에'이며, 올바르게는 '한 번밖에'이다.
④ O: '한번 엎지른 물'의 '한번'은 이미 일어난 일을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일주일에' 뒤에서 만나는 횟수를 세고 있는데, '한번'이 자주 쓰이는 모양이라는 이유로 붙여 쓰기 쉽다. 횟수 '한 차례'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한 번'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차례, 두 차례’처럼 횟수를 셀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시험 삼아 해 보다’ 또는 행동을 강조하는 뜻이면 부사 ‘한번’으로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횟수는 ‘한 번’, 시도·강조는 ‘한번’이다.

NoteBase

문 2.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것이다.

① ㉠: '살고기'로 적지 않고 '살코기'로 적음
② ㉠: '론의(論議)'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음
③ ㉡: '그피'로 적지 않고 '급히'로 적음
④ ㉡: '달달이'로 적지 않고 '다달이'로 적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글 맞춤법의 두 원칙, 즉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원칙(㉠)과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표준어에서 실제로 나는 소리를 중심으로 적는 원칙이다. ㉡은 발음이 달라지더라도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드러내어 적는 원칙이다.
소리대로 적기: 발음에서 사라진 소리는 적지 않는다. 형태소를 밝혀 적기: 발음이 달라도 어근이나 접사의 본모양을 살린다.

선지별 해설

① O. '살코기'는 '쌀고기'로 적지 않고 표준 발음에 맞추어 적은 말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O. 한자어 '論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표준어 '논의'로 적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O. '급히'는 발음이 [그피]이지만 어근 '급'과 접사 '-히'의 형태를 밝혀 적은 말이다. 따라서 '그피'가 아니라 '급히'로 적는 것은 ㉡의 예로 적절하다.
④ X. '다달이'는 '달-달-이'에서 첫 '달'의 ㄹ 소리가 나지 않는 형태를 적은 말이다. 따라서 '달달이'로 형태소를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다달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의 예이다. 틀린 분류인 '㉡' → '㉠'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달-달-이'라는 구성만 보고 형태소를 밝혀 적은 사례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표기는 첫 '달'의 ㄹ을 남기지 않은 '다달이'이므로 형태소의 본모양보다 발음 결과를 따른 사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와 발음이 다를 때 어근·접사의 원형이 글자에 남아 있으면 ㉡으로, 원형의 소리가 탈락하거나 바뀐 발음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면 ㉠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급히'는 급을 살려 ㉡, '다달이'는 ㄹ을 빼서 ㉠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 달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② 식당에서 깎두기를 더 주문했다.
③ 손님은 종업원에게 당장 주인을 불러오라고 닥달하였다.
④ 작은 문 옆에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다란 길이 났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아니라 표준어로 정해진 어휘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 표기는 실제 발음이나 어원만으로 임의로 적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형태를 따른다. '먹거리', '깍두기', '닦달', '널따란'의 표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먹거리'는 먹을거리라는 뜻의 표준어로, '먹거리'라고 적는 것이 맞다.
② X: 밑줄 친 '깎두기'의 받침 표기가 틀렸다. '깎두기' → '깍두기'로 적는다.
③ X: '닥달하였다'의 '닥달' 표기가 틀렸다. '닥달' → '닦달'로 적는다.
④ X: '넓다란'의 표기가 틀렸다. '넓다란' → '널따란'으로 적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깎다'를 떠올려 '깎두기'로, ③은 발음에 이끌려 '닥달'로 적기 쉽다. ④도 '넓다'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여 '넓다란'으로 쓰기 쉽지만, 각각 사전에 정해진 표준 표기는 '깍두기', '닦달', '널따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익은 발음이나 어원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복수의 표기 중 사전에 정해진 표준어 형태를 확인한다. 특히 된소리 받침과 비슷하게 들리는 말은 표기 자체를 묶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먹거리·깍두기·닦달·널따란: 발음보다 표준 표기 형태를 기억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애’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애’와 ‘에’를 구별하는 ‘(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① 혀의 앞뒤 관련 자질
②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
③ 소리의 강약 관련 자질
④ 소리의 장단 관련 자질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음을 구별하는 조음 위치의 자질을 묻는다. ‘애’와 ‘에’는 혀의 높낮이 차이로 구별되는데,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는 이 차이가 약해져 두 모음의 구별이 불분명해진다.

핵심 개념

혀의 앞뒤는 혀가 입안의 앞쪽 또는 뒤쪽에 놓이는 자질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가르는 기준이다. 혀의 높낮이는 혀가 높게 또는 낮게 놓이는 자질로, ‘애’와 ‘에’처럼 높이가 다른 모음을 가르는 기준이다. 소리의 강약은 발음의 세기와 관련되고, 소리의 장단은 발음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혀의 앞뒤’는 전설·후설의 구별 자질이다. 틀린 표현은 ‘혀의 앞뒤’이며, 올바르게는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이다.
② O. ‘애’와 ‘에’는 혀의 높낮이 차이로 구별되는 모음이다. 이 높낮이 차이가 약해지면 두 모음의 발음이 가까워져 구별이 어려워진다.
③ X. 소리의 강약은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자질이므로 ‘애’와 ‘에’의 모음 구별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리의 강약’이며, 올바르게는 ‘혀의 높낮이’이다.
④ X. 소리의 장단은 발음의 길이와 관련된 자질이므로 ‘애’와 ‘에’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소리의 장단’이며, 올바르게는 ‘혀의 높낮이’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혀’라는 말 때문에 조음 위치와 관련 있다고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혀의 위치는 앞뒤와 높낮이로 나뉘며, 이 문항에서 필요한 것은 앞뒤가 아니라 높낮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음의 구별 자질을 묻는 경우 혀의 앞뒤는 전설·후설, 혀의 높낮이는 고모음·저모음의 구별과 연결해 판단한다. 소리의 세기와 길이는 모음의 조음 위치 자질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모음의 앞뒤는 전설·후설, 모음의 높낮이는 고저의 차이이다. '애·에'의 핵심은 혀의 높낮이이다.

NoteBase

문 5. 어법에 맞는 문장은?

① 그 어른은 웬간해서는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다.

② 일이 얽히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빠지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④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어의 형태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목적어의 관계가 어법에 맞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웬만하다'는 정도가 보통 이상임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얽히고설키다'는 여러 일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를 뜻하는 한 단어이다. '빼다'는 어떤 대상을 제외하는 타동사이고, '개통되다'의 주체는 도로·철도·노선 등 통행을 시작하는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웬간해서는'이 틀린 표현이다. '웬만해서는'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얽히고설키다'는 표준어이므로, '일이 얽히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는 어법에 맞는다.
③ X. 필요한 기능만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한다는 뜻이므로 타동사 '빼다'를 써야 한다.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로 고친다.
④ X. '개통되다'는 공사 자체가 아니라 공사로 만들어지는 도로·철도·노선 등이 통행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다'처럼 주어를 구분해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발음이 비슷한 '웬간하다'를 표준어로 오인하기 쉽고, ③은 '빠지다'와 '빼다'의 자동사·타동사 구별을 놓치기 쉽다. ④는 '시작되다'와 '개통되다'를 모두 공사의 상태로 처리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표현은 표준어 형태를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무엇을 제외하는가'에는 목적어를 취하는 '빼다'를, '무엇이 통행을 시작하는가'에는 도로·노선 등을 주어로 한 '개통되다'를 쓴다.

암기 포인트

웬만하다·얽히고설키다 / 기능은 빼고 / 도로·노선이 개통된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말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다른 것은?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小朝)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할손 어이 '피(避)차.'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아니하시고, 좌우를 치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 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자 하야, 내인(內人)더러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몽매(夢寐) 밖에 싹 하시기를, "자네가 아무커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 하기,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 사외로워, 세손의 휘항을 아니 쓰이랴 하는 심술을 알겠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요, 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 혜경궁 홍씨, 『한중록』 —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 속 호칭과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조(小朝)는 왕세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의 '소조', ㉡의 '내가', ㉢의 '당신'은 모두 사도세자를 가리킨다. 반면 ㉣의 '내'는 이 일을 회고하며 말하는 혜경궁 홍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소조'는 왕세자인 사도세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과 지시 대상이 같으므로, ㉠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② X. ㉡의 '내가'는 '학질을 앓는다'고 말한 사도세자이다. ㉠·㉢과 같은 인물이므로, ㉡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③ X. ㉢의 '당신'은 휘황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은 사도세자이다. ㉠·㉡과 같은 인물이므로, ㉢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④ O. ㉣의 '내'는 글을 서술하는 혜경궁 홍씨이다. 사도세자를 가리키는 ㉠~㉢과 지시 대상이 다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당신'은 현대어의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처럼만 보면 화자를 찾기 쉽다. 그러나 앞뒤 발화 관계를 따라가면 사도세자를 높여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에서는 '내 마음'의 화자가 글 전체의 서술자로 바뀐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호칭·나·당신이 나오면 먼저 그 말이 들어 있는 발화의 화자를 찾고, 그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확인한다. 회고 서술에서 '내'가 나오면 작품의 서술자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조·내가·당신은 사도세자, '내 마음'의 나는 혜경궁 홍씨이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저근덧 생각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께쳤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아 있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앉으리라.
임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좇으려 하노라.

① 서방님 병(病) 들여 두고 쓸 것 없어
종루 저자에 다리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화당(五花糖)을 잊어 버렸구나.
수박에 숟 꽂아 놓고 한숨계워 하노라.

② 갓나희들이 여러 층(層)이오매
송골매도 같고 줄에 앉은 제비도 같고 백화원리(百花園裡)에
두루미도 같고 녹수파란(綠水波瀾)에 비오리도 같고 따헤 퍽
앉은 소리개도 같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도 같데.
그려도 다 각각 임의 사랑이니 개(皆) 일색(一色)인가 하노라.

③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에 허튼 혜음 아니하니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④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나니
산 접동새 난 비슷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것을
아으 잔월효성이 알으시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 속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가 제시문과 가장 유사한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해 병이 들고,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의 옷에 앉고 싶어 하는 애상적 연정을 드러낸다.

NoteBase

핵심 개념

애상적 연정은 사랑하는 임과 떨어진 화자가 그리움·슬픔·괴로움을 드러내는 정서이다. 안빈낙도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연을 벗 삼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이다.
제시문과 ④는 모두 임을 그리워하여 괴로워하는 애상적 연정이고, ③은 자연 속에서 만족을 찾는 안빈낙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병든 서방을 위해 과일을 사면서 정작 '오화당'을 잊었다고 하는 익살스러운 상황이 중심이다. 임과 이별하여 병든 제시문의 애상적 그리움과는 다르다. 틀린 판단 → 이 작품도 임을 잃은 슬픔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일상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② X. 여러 처녀의 모습을 송골매·제비·두루미·소리개·부엉이 등에 빗대어 각기 다른 모습과 매력을 나열한다. 특정한 임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정서는 중심이 아니다. 틀린 판단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애상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인물들의 외양과 개성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③ X.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고 '청풍명월'을 벗으로 삼으며 가난한 삶 속의 즐거움을 말한다. 틀린 표현 → 임을 향한 그리움과 애상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을 벗 삼는 안빈낙도의 정서이다.
④ O.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나니'에서 임을 잃은 그리움이 직접 드러나고, 우는 접동새에 자신을 견준다. 제시문의 '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임의 옷에 앉으리라'와 마찬가지로 임을 향한 애상적 연정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에도 남녀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 있으나, 제시문처럼 이별한 한 임을 잊지 못해 병들고 울부짖는 정서는 아니다. ③의 '청풍명월', '백년행락'은 그리움이 아니라 자연 속 만족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정서를 비교할 때에는 '임', '그리워', '울다', 병듦처럼 이별의 고통을 직접 드러내는 시어를 먼저 찾는다. 그 뒤 자연 예찬·안빈낙도·해학적 상황·외양 묘사처럼 정서의 방향이 다른 선지를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임을 그리워해 병들고 우는 마음은 애상적 연정, 청풍명월을 벗 삼는 마음은 안빈낙도이다.

NoteBase

문 8. ㉠, ㉡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其道得之, 不處也
○ 樹欲靜(㉡)風不止

① ㉠: 而, ㉡: 以
② ㉠: 以, ㉡: 而
③ ㉠: 而, ㉡: 而
④ ㉠: 以, ㉡: 以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문에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以'와 절을 이어 주는 접속사 '而'의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以'는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수단·방법을 나타내며 '~으로, ~을 가지고'라는 뜻이 된다. '而'는 앞뒤의 말이나 절을 이어 '그리고, 그러나'의 관계를 나타낸다.
첫째 문장의 '其道'는 방법이므로 '以其道'는 '그 도리로'라는 뜻이다. 둘째 문장은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의 두 절을 대비하므로 '而'가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而'가 틀렸다. '其道'라는 방법을 앞세워 '그 도리로 얻다'라고 해야 하므로 '而' → '以'가 되어야 한다. ㄴ도 두 절을 잇는 자리이므로 '以' → '而'가 되어야 한다.
② O: '不以其道得之'는 '그 도리로 얻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以'가 수단을 나타낸다. '樹欲靜而風不止'는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而'가 두 절을 이어 준다.
③ X: ㄴ의 '而'는 맞지만 ㄱ의 '而'가 틀렸다. '不而其道得之'는 방법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ㄱ은 '以'로 고쳐야 한다.
④ X: ㄱ의 '以'는 맞지만 ㄴ의 '以'가 틀렸다. '風不止'는 앞 절 '樹欲靜'과 이어지는 서술절이므로 ㄴ은 '以' → '而'가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두 글자 모두 앞뒤에 놓일 수 있어 모양만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ㄱ에서는 '其道'가 '얻는 방법'이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以'가 필요하고, ㄴ에서는 '나무가 고요하려 함'과 '바람이 그치지 않음'이 대비되므로 접속사 '而'가 필요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에 방법·도구·대상 명사가 와서 '~으로'라고 풀이되면 '以'를 판단한다. 빈칸의 앞뒤가 각각 서술 내용을 이루어 두 절을 연결하면 '而'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以는 수단 '~으로', 而는 연결 '그리고·그러나'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의 고쳐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클래식 입문' - 두려워하지 마세요.

클래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클래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 티케트를 구한 후 별도의 준비 없이도 공연 현장에서 곧바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클래식이다.

물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습'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장에 가기 전에 감상할 음악의 전곡(全曲) 음반을 구해 ㉢ 미리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작곡가나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다.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한 것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연주가 끝날 때에는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연주가 만족스럽게 느껴졌을 때도 박수를 칠 수 있다. 매우 감동한 경우에는 '앙코르!', '브라보!' 등의 환호를 보내도 ㉣ 올바르다.

① ㉠: 제목을 '클래식 예절 - 꼭 지켜야할 것들'로 바꾸자.

② ㉡: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티케트'를 '티켓'으로 고치자.

③ ㉢: 서술어를 '미리 들어 보는 것이다.'로 고쳐야겠어.

④ ㉣: '올바르다'는 '무방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에 맞는 제목, 외래어 표기, 문장 성분의 호응,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쳐 쓰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목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압축하여 드러내는 글의 이름이다. 외래어 표기는 정해진 표기 원칙에 따라 적고, 서술어는 주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해야 한다. 문맥에 따른 어휘 선택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뜻에 가장 알맞은 낱말을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클래식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공연을 더 잘 즐기는 방법을 안내한다. 따라서 '클래식 예절 - 꼭 지켜야할 것들'은 글의 내용을 '지켜야 할 예절'에만 한정하여 중심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지켜야할'도 '지켜야 할'로 띄어 써야 한다. 제목은 원래처럼 클래식 입문과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알맞다.
② O: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는 '티켓'이다. '티켓트'는 끝소리를 불필요하게 덧붙인 표기이므로 '티켓'으로 고친다.
③ O: '가장 좋은 방법은'의 서술어 자리에는 그 방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미리 들어 보는 것이다'가 자연스럽다. 원문의 '미리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방법 자체를 말하면서 가능·필요의 뜻을 덧붙여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색하다.
④ O: 감동한 경우에 환호를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므로 '올바르다'보다 '무방하다'가 문맥에 알맞다. '무방하다'는 해롭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는 뜻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제목을 바꾸는 제안이라 그럴듯하지만, 글에는 클래식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사전 감상 방법도 함께 제시된다. '클래식 예절'과 '꼭 지켜야 할 것들'만으로는 글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을 고칠 때에는 글의 일부 사례가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담는지를 판단한다. 이어서 외래어 표기, 주어·서술어의 호응, 앞뒤 문맥의 뜻을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글 전체, '티켓'은 외래어 표기, 방법의 서술어는 '~하는 것이다', 허용의 뜻은 '무방하다'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빠, 편히 사시오."
계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계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계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뜩어뜩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 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계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 김동리, 『역마』 —

① 계연이 하직 인사를 세 번 한 것은 성기와의 인연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② 성기의 말없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성기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③ 계연이가 마을을 떠나는 장면의 자연적 배경은 굴곡이 심한 계연의 미래를 암시한다.

④ 성기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 자연 묘사, 서술자의 태도가 각각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반복된 말과 침묵은 극한 상황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연 묘사는 장면의 정서와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인물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는 것과 그 인물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연의 세 차례 하직 인사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인사의 반복이며, 성기와의 인연을 끊으려는 적극적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인연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이며, 올바르게는 죽음에 이르는 계연의 마지막 작별이 반복되어 제시된 것이다.
② O. 성기는 계연의 말을 듣고 얼어붙은 듯 바라보기만 하고, 계연이 기적을 기다리는 눈빛을 보내도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 말없음은 충격·슬픔·무력감 등이 얽힌 복잡한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보여 준다.
③ X. '고운 햇빛', '늘어진 버들가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삐꾸기 울음'은 계연의 죽음과 장례 행렬의 애도 분위기를 돋운다. 틀린 표현은 '굴곡이 심한 계연의 미래를 암시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현재의 비애롭고 쓸쓸한 장면을 정서적으로 강화한다.
④ X. 성기가 계연을 바라보기만 하거나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는 모습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인물의 무력함과 비통함을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작가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며, 올바르게는 성기의 슬픔과 무력감을 공감적으로 제시한 서술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반복을 곧바로 '관계를 끊으려는 의지'로 바꾸고, ③은 자연 묘사를 근거 없이 미래 암시로 단정한 선지이다. ④도 성기의 소극적 행동을 작가의 비판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말·행동은 앞뒤 상황에서 드러나는 심리와 연결하고, 자연물은 장면의 분위기 조성인지 미래 암시인지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판단한다. 서술 태도는 인물을 비난하는 표현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반복된 작별은 이별의 절박함, 침묵은 말로 다 못 할 내면, 자연 묘사는 장면의 정서 강화로 파악한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관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 친구는 입이 높아 일반 음식은 먹지 않아.

② 그는 입이 뜨고 과묵한 사람이다.

③ 입 아래 코라고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

④ 사람이 저렇게 입이 진 것을 보니 교양이 있겠구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체 관련 관용어가 문맥에 맞는 뜻으로 쓰였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관용어는 낱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굳어진 전체 뜻으로 판단한다. '입이 높다'는 좋은 음식만 찾는 버릇, '입이 뜨다'는 말수가 적음, '입이 질다'는 함부로 말하거나 수다스러움, '입 아래 코'는 일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입이 높다'는 보통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맛있고 좋은 음식만 바라거나 가리는 버릇을 뜻한다. 일반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문맥에 맞는다.
② O: '입이 뜨다'는 입이 무거워 말수가 적다는 뜻이다. '과묵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③ O: '입 아래 코'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를 비유한다.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맥에 맞는다.
④ X: '입이 진'은 기본형 '입이 질다'가 활용된 말로, 말씨가 속되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수다스러운 버릇이 있음을 뜻한다. 교양이 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 '교양이 있겠구나' → 올바르게는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겠구나'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진'을 '긴'처럼 보거나 겉모양의 입과 관련된 말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입이 진'은 '입이 질다'의 활용형이므로 말버릇이 거칠고 수다스러운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어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가 그 관용어의 굳어진 뜻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한다. 음식 선호, 말수, 말버릇, 일의 순서처럼 뜻의 범주를 먼저 가려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입이 높다=음식을 가림, 입이 뜨다=말수가 적음, 입이 질다=말을 함부로 하거나 수다스러움이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시어 중 내포적 의미가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①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
② 찾아가고 싶다, 바꾸고 싶다
③ 털보네 대장간, 직지사 해우소
④ 무쇠낫, 꼬부랑 호미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덧붙은 내포적 의미가 서로 같은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어리’는 쉽게 버려지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존재를 뜻한다.
‘털보네 대장간’, ‘무쇠낫’, ‘꼬부랑 호미’는 땀과 손기술로 만든 물건 및 그 세계를 통해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인간적인 삶을 드러낸다.
‘직지사 해우소’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부끄럽고 더럽게 느끼는 장면과 이어져, 삶의 부끄러움과 추락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플라스틱 물건’은 값싸고 쉽게 버려지는 존재, ‘똥덩어리’는 더럽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비유한다. 두 시어는 모두 화자가 느끼는 무가치함을 나타내므로 내포 의미가 유사하다. 틀린 표현은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이다. 올바르게는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이다.
② X. ‘찾아가고 싶다’에는 사라진 대장간과 진정한 노동의 세계를 되찾고 싶은 바람이, ‘바꾸고 싶다’에는 자신을 무쇠낫으로 바꾸어 그런 가치를 지니고 싶은 바람이 담긴다. 둘 다 진정한 삶을 지향하는 소망이므로 유사하다. 틀린 표현은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이다. 올바르게는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이다.
③ O. ‘털보네 대장간’은 손으로 두들겨 연장을 만들던 노동과 인간적인 삶의 공간을 뜻한다. 반면 ‘직지사 해우소’는 삶이 ‘똥덩이’처럼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추락의 이미지에 놓여 있다. 두 시어의 내포 의미는 유사하지 않다.
④ X. ‘무쇠낫’과 ‘꼬부랑 호미’는 땀과 손기술로 만들어 오래 쓰는 농기구로서, 소중한 노동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징한다. 두 시어의 내포 의미는 유사하다. 틀린 표현은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이다. 올바르게는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두 시어가 모두 장소를 나타낸다는 외형만 보면 같은 부류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털보네 대장간’은 그리움의 대상인 노동의 공간이고, ‘직지사 해우소’는 부끄럽고 추락한 삶의 이미지와 결합하므로 정서적 방향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의 사전적 대상이 아니라 주변 서술어와 비유를 함께 본다. ‘찾아가고 싶다’, ‘바꾸고 싶다’처럼 지향의 대상이 되는 말은 긍정적 가치와 연결하고, ‘버리는’, ‘똥덩이’, ‘나락’처럼 부정적 맥락에 놓인 말은 무가치함·부끄러움과 연결해 비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장간·무쇠낫·호미는 노동의 가치, 플라스틱 물건·똥덩어리는 무가치함, 해우소는 부끄러움과 추락의 이미지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도 인간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언어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사멸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 (중략) … 하와이어도 사멸 위기를 겪었다. 하와이어의 포식 언어는 영어였다. 1778년 당시 80만 명에 달했던 하와이 원주민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감기, 홍역 등의 질병과 정치 문화적 박해로 1900년에는 4만 명까지 감소했다. 당연히 하와이어 사용자도 급감했다. 1898년에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되면서부터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하와이어의 위상은 영어 공용어 교육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1978년부터 몰입식 공교육을 통한 하와이어 복원이 시도되고 있으나, 하와이어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원주민 수는 현재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 (중략) …
언어의 사멸은 급속하게 진행된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평균 2주에 1개 정도의 언어가 사멸하고 있다. 우비크, 쿠페뇨, 맹크스, 쿤월, 음바바람, 메로에, 컴브리아어 등이 사라진 언어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하다.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언어 사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②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 언어가 사멸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언어 사멸의 위기를 증명하였다.

④ 언어를 생명체에 비유하고, 수많은 언어가 사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언어 사멸을 설명하는 글에서 사용한 진술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진술 방식은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사례, 비유, 예상 반론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글은 수치와 하와이어 사례를 들어 언어 사멸의 실태와 전망을 설명하고, 언어를 인간의 생로병사에 비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평균 2주에 1개’, ‘금세기 말까지 90%’와 하와이어 사용자 수 등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언어 사멸 현상을 설명한다.
② X: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가 잘못되었다. 글은 언어 복원 시도를 언급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을 세워 반박한 것이 아니다. 하와이어의 복원 시도에도 모국어 구사자가 1,000명 정도라는 사실을 들어 사멸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③ O: 하와이어가 사멸 위기를 겪은 과정과 이미 사라진 언어들의 이름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언어 사멸의 위기를 뒷받침한다.
④ O: 첫머리에서 언어를 인간처럼 생로병사를 겪는 존재로 비유하고, 끝부분에서 지구상 언어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포인트

‘그러나’나 ‘~하고 있으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예상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복원이 시도되고 있으나’는 반론을 반박하는 구조가 아니라, 복원 노력에도 위기가 계속됨을 보여 주는 사례 설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계 수치, 구체적 사례, 비유는 실제 문장 속 근거를 확인한다. 예상 반론 제기는 글쓴이의 주장에 맞서는 견해를 먼저 제시한 뒤 그것을 반박하거나 제한하는 논리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수치·사례·비유는 실제 제시 여부를, 예상 반론은 ‘반대 견해 제시와 반박’의 구조를 확인한다.

NoteBase

문 14. 전화를 걸 때의 표준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구)의 친구 ○○(이름)입니다.'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예(禮)이다.

②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하고 끊는다. '들어가세요.'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전화를 끊어야 할 때도 자신을 밝히고 끊어야 하며, 어른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③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죄송합니다만, ○○(이름)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쓴다. 이 상황에서도 '전해 주시겠습니까?'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으로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화를 걸고 받을 때의 표준 언어 예절, 특히 통화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화 예절은 상대의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 자신과 용건을 밝히고, 정중한 인사 뒤에 통화를 끝내는 것이다.
전화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들어가세요.'는 일반적인 끝인사로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화를 건 사람은 먼저 인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자신이 누구의 친구인지까지 밝혀 관계를 알리는 것이 예의에 맞다.

② X: 틀린 표현은 '들어가세요.'이다. 전화 상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들어갈 상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끝인사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처럼 정중히 인사한다.
전화를 건 사람이 어른보다 먼저 끊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O: 통화하려던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나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전해 주시겠습니까?'는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로 바꾸어 정중하게 말할 수 있다.

④ O: 잘못 건 전화임을 알았을 때에는 사과하고 잘못 걸었다는 사실을 정중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들어가세요.'는 일상적으로 자주 들리지만, 전화에서는 상대방의 이동이나 귀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알맞은 작별 인사가 아니다. 자주 쓰이는 말과 표준적인 예절 표현을 구별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화 예절 선지는 먼저 신분·용건을 밝혔는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중한 표현인지, 통화 종료 시 연장자나 윗사람을 배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의 실제 상황을 단정하는 작별 인사라면 적절성을 다시 살핀다.

암기 포인트

전화 끝인사: '들어가세요.'보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가 알맞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많은 고통을 ㉠감수한 결과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① ㉠: 甘授, ㉡: 漫延
② ㉠: 甘受, ㉡: 漫延
③ ㉠: 甘授, ㉡: 蔓延
④ ㉠: 甘受, ㉡: 蔓延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수'와 '만연'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수(甘受)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달게 받아들이고 견딤을 뜻하며, '받을 수'인 受를 쓴다. 만연(蔓延)은 어떤 현상이나 분위기가 널리 퍼짐을 뜻하며, 덩굴이 뻗는 모습을 나타내는 '덩굴 만' 蔓을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甘授'가 틀렸다. 授는 '줄 수'이므로 '고통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감수에는 맞지 않는다. 감수는 甘受이다. ㉡의 '漫延'도 틀렸으며, 만연은 蔓延이다.
② X: ㉠ 감수는 甘受로 옳다. 그러나 ㉡의 '漫延'이 틀렸다. 널리 퍼진다는 뜻의 만연은 蔓延이다.
③ X: ㉡ 만연은 蔓延으로 옳다. 그러나 ㉠의 '甘授'가 틀렸다. 감수는 괴로움을 달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甘受이다.
④ O: 감수는 甘受, 만연은 蔓延으로 두 한자 표기가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감수의 受를 授로 바꾸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②는 감수만 맞고, '만연'을 漫延으로 쓴 점이 틀리다. '고통을 받는다'의 의미와 '덩굴처럼 퍼진다'의 이미지를 연결하면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는 문맥의 뜻과 각 한자의 뜻을 연결해 판단한다.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말에는 受를, 널리 퍼지는 말에는 덩굴을 뜻하는 蔓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감수는 '달게 받을 감·받을 수'의 甘受, 만연은 '덩굴 만·늘일 연'의 蔓延이다.

NoteBase

문 16.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장은?

'천재'라는 말은 18세기에 갑자기 영예로운 칭호가 되었다. 천재는 예술의 창조자이며, 예술의 창조는 과학처럼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다. ㉠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다. ㉡ 예술에는 전래의 비방이 있을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전수될 수 없다. ㉢ 예술가 스스로도 자신이 완성한 작품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 마침내, 사람들은 천재라는 개념으로 예술 창조의 비밀을 표현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문장을 찾아 글의 통일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의 통일성은 모든 문장이 하나의 중심 화제에 기여하는 성질이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예술 창조가 원리나 전수된 비방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이며, 이를 '천재'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과학이 낳은 이성·감성의 분열을 말할 뿐, 예술 창조의 비밀과 천재 개념이라는 중심 화제를 이어 가지 못한다. 틀린 표현 → 글의 통일성을 위해 이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O — ㉡은 예술에 전수 가능한 '비방'이 없다고 하여 예술 창조가 일정한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앞내용을 뒷받침한다.
③ O — ㉢은 예술가 자신도 작품 창조의 비밀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 예술 창조의 신비성을 구체화한다.
④ O — ㉣은 앞에서 말한 예술 창조의 설명하기 어려운 비밀을 '천재'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결론이므로 문단을 마무리한다.

오답 포인트

㉠은 바로 앞 문장에 '과학'이 나오므로 관련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 문장의 과학은 예술 창조가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대비를 위한 것이고, ㉠의 이성·감성 분열은 이후의 예술 창조 비밀과 연결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이 중심 화제의 근거·예시·부연·결론 가운데 어느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 특정 문장만 중심 화제와 이어지지 않고 뒤 문장과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삭제 대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일성 판단은 '문장에 같은 낱말이 있는가'가 아니라 '중심 화제를 발전시키는가'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7. 춘향과 신관 사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관이 분부하되 “네 본읍 기생으로 도임 초에 현신 아니 하기를 잘 했느냐?”
춘향이 아뢰되 “소녀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 뫼신 후에 대비정속한 고로 대령치 아니하였나이다.”
신관이 증을 내어 분부하되 “고이하다. 너 같은 노류장화가 수절이란 말이 고이하다. 네가 수절하면 우리 마누라는 기절할까? 요망한 말 말고 오늘부터 수청 거행하라.”
춘향이 여쭙되 “만 번 죽사와도 이는 봉행치 못할소이다.”
신관의 말이 “네 잡말 말고 분부대로 거행하여라.”
춘향이 여쭙되 “고언에 충신은 불사이군이오, 열녀는 불경이부라 하오니 사또께서는 응당 아실지라. 만일 국운이 불행하여 난시를 당하오면 사또께서는 도적에게 굴슬하시리이까?” 신관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강변의 덴 소 날뛰듯하며 춘향을 바삐 형추하라 하니

① 신관 사또는 춘향에게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을 번갈아 사용했다.
② 신관 사또는 춘향의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희화적 표현을 사용했다.
③ 춘향은 양시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④ 춘향은 자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신관 사또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화 속 인물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는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유는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설득하는 말하기이고, 겁박은 위협이나 강요로 상대를 따르게 하는 말하기이다.
양시론은 대립한 양쪽의 입장을 모두 옳다고 보거나 절충하려는 관점이다.
춘향은 ‘충신은 불사이군,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원칙을 근거로 수청 거부의 정당성을 밝히고, 사또를 도적에게 굴하는 경우에 빗대어 그의 요구가 부당함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신관 사또는 춘향의 수절을 '노류장화'의 수절이라고 낮추어 조롱하고 수청을 명령한다. 춘향의 마음을 달래는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을 번갈아 사용한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을 번갈아' → 올바르게는 비하·조롱과 강압적 명령을 사용한다.

② X. '우리 마누라는 기절할까?'와 같은 표현은 춘향의 수절 주장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깎아내리는 조롱이다. 춘향의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는 희화적 표현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 올바르게는 춘향의 태도를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사용한다.

③ X. 춘향은 두 입장을 모두 인정하거나 절충하는 양시론을 펴지 않는다. 한 임금을 섬기는 충신과 한 지아비를 섬기는 열녀의 원칙을 들어 자신의 수절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틀린 표현: '양시론적 입장' → 올바르게는 자신의 수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단일한 가치 기준을 제시한다.

④ O. 춘향은 충신과 열녀의 원칙을 근거로 자신의 수청 거부가 정당함을 밝힌다. 이어 사또가 난시에 도적에게 굴복할지를 묻는 반문과 유추로, 자신에게 다른 남자를 섬기라고 하는 사또의 요구가 부당함을 부각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고이하다'는 진심 어린 칭찬이 아니라 춘향을 비웃는 반어적 말이다. 또한 ③은 충신·열녀의 원칙과 사또의 처지를 대비한 것이지, 양쪽 주장을 모두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에서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설득하려는지, 비웃거나 강요하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이어 인물이 제시한 원칙이 자신의 주장만을 지지하는지, 대립한 양쪽을 모두 인정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춘향은 충신·열녀의 원칙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도적 비유의 반문으로 사또의 부당성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는 나는 “평생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하면서 “평생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 (중략) …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엣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엣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

한다. … (중략) …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읍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감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 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

NoteBase

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① 현실에 쉽게 좌절하는 무기력한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② 서술의 초점을 사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데 맞추고 있다.
③ 순박하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포용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④ 개인의 삶을 짓밟는 현실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처지와 행동을 대하는 화자의 서술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수건의 궁핍과 포도를 사 온 마음을 헤아리며 연민과 포용의 태도를 보인다.

핵심 개념

화자의 태도란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적·가치적 입장이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인물을 평가하는 말뿐 아니라 화자가 보이는 행동과 마지막 묘사를 함께 본다.
이 글의 화자는 수건을 매질에서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준 뒤, 포도를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여기며 먹는다. 이는 수건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처지를 감싸는 태도이다.
직접적 비판은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화자가 분명하게 비판하는 방식이고, 이 글은 수건의 궁핍한 처지를 제시하지만 그보다 인물에 대한 연민을 중심에 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건은 원 배달을 하고 싶어 하고, 포도를 사 오려는 마음도 보이는 인물이다. 화자는 그를 '무기력한 인물'로 조롱하지 않고 포도값을 대신 물어 준다. 틀린 표현은 '조롱하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수건의 궁핍한 처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② X: 글은 사건들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수건의 소원, 원 배달에 대한 부러움, 포도를 사 온 행동을 통해 그의 처지와 마음을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사건의 논리적 인과관계'이며, 올바르게는 인물의 처지와 내면 및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③ O: 화자는 수건이 훔친 포도의 값을 물어 주어 그가 매를 맞지 않게 한다. 이어 포도를 수건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여기며 오래 아껴 먹는다. 수건의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X: 수건의 가난과 폭력적인 상황은 제시되지만, 화자가 현실의 부조리를 직접 논평하거나 고발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현실 속 인물의 궁핍과 순정을 통해 안타까움과 연민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포인트

수건이 포도를 훔친 사실만 보고 화자가 그를 비난하거나 사회 현실을 직접 고발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포도값을 물어 주는 행동과 '순정의 열매'라는 마지막 표현은 화자의 시선이 비난보다 이해와 연민에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설의 화자 태도는 인물에게 붙인 평가어, 화자의 행동, 결말의 비유적 표현을 차례로 확인한다. 화자가 인물을 돕고 그 행동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포용·연민의 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포도값을 물어 줌'과 '순정의 열매'는 수건을 향한 화자의 포용과 연민을 드러내는 핵심 단서이다.

NoteBase

문 19. ㉠과 ㉡이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① ㉠: 單刀直入, ㉡: 去頭截尾

② ㉠: 如出一口, ㉡: 異口同聲

③ ㉠: 屍山血海, ㉡: 滄海一粟

④ ㉠: 面從腹背, ㉡: 口蜜腹劍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사자성어가 가리키는 핵심 의미가 같은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도직입은 요점을 곧바로 말하는 것이고, 거두절미는 앞뒤의 군말을 빼고 본론만 말하는 것이다.
여출일구와 이구동성은 여러 사람이 한목소리로 같은 의견을 말한다는 뜻이다.
시산혈해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룰 만큼 참혹한 전쟁터를 뜻하고, 창해일속은 큰 바다의 한 알처럼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뜻한다.
면종복배와 구밀복검은 겉으로는 따르거나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는 태도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틀렸다. 단도직입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요점을 말함을, 거두절미는 앞뒤 말을 생략하고 본론만 말함을 뜻하므로 비슷한 의미이다. 올바르게는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이다'이다.
② X: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틀렸다. 여출일구는 여러 사람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 듯 같다는 뜻이고, 이구동성은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므로 비슷한 의미이다. 올바르게는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이다'이다.
③ O: 시산혈해는 전쟁으로 생긴 처참한 광경을, 창해일속은 매우 작은 존재나 미미한 부분을 뜻한다. 두 성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아닌 조합이다.
④ X: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틀렸다. 면종복배는 겉으로 복종하면서 속으로 배반함을, 구밀복검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음을 뜻하므로 비슷한 의미이다. 올바르게는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두 성어에 모두 강한 한자어 이미지가 있어 같은 부정적 의미로 묶기 쉽다. 그러나 시산혈해의 핵심은 '참혹한 전쟁의 광경'이고, 창해일속의 핵심은 '광대한 대상에 비해 매우 작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의 한 글자씩을 억지로 연결하기보다 전체가 가리키는 상황을 짧은 우리말로 바꾸어 비교한다. ‘전쟁의 참상’과 ‘매우 작음’처럼 상황이 다르면 유사어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시산혈해는 전쟁의 참상, 창해일속은 큰 바다의 한 알처럼 매우 작음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나무람을 들어 보지 않은 젊은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람에서 어르신 세대의 불편한 심기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그 변화에 대한 감각이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어르신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젊은 세대의 존대법이다. 어르신 세대가 보기에, 젊은 세대의 존대법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 불쾌하기까지 한 것이다.

① "요즘 애들은 어른을 만나서 말을 할 때도 '저'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더군."

②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은요.'라고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

③ "친구 아들이 날 '과장님'이라 부르더군. 직함이 과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

④ "어른한테 '수고하세요.'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젊은 세대의 존대법 변화를 어르신 세대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례와, 그러한 변화와 무관한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존대법은 상대를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어 관계와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말법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변화는 기존의 높임말 규범과 다른 표현을 젊은 세대가 쓰는 현상이며, 어르신이 그 표현을 낯설거나 무례하게 여기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어른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저' 대신 평칭인 '나'를 쓰는 것은 전통적인 존대 표현과 다르다. 어르신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모습이므로 글을 뒷받침한다.

② O: '말씀'은 보통 상대를 높이거나 상대에게 드리는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제가 한 말씀'은 자신의 말을 높이는 듯하여 어색하다. '제가 한 말은요.' 또는 '제가 드릴 말씀은요.'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므로 글을 뒷받침한다.

③ X: 친구의 아들이 실제 직함에 따라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젊은 세대의 존대법이 달라져 어르신이 불편해한 사례가 아니다. 틀린 표현 → '직함이 과장이라 그렇게 부르더군.'은 존대법 변화의 사례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직함에 따른 호칭을 쓴 사례일 뿐이다.'라고 판단한다.

④ O: 어른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낯설고 부적절하게 여기는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높임말 사용을 어르신 세대가 불편해하는 사례이므로 글을 뒷받침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눈에 띄지만, 실제 직함을 사용해 상대를 높인 정상적인 호칭이다. 반면 ①, ②, ④는 각각 '나', '제가 한 말씀', '수고하세요'처럼 기존 존대법과의 차이 때문에 어르신이 낯설어하는 표현을 직접 보여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주장에 맞는 사례인지 판단할 때에는 먼저 표현이 기존 존대법과 다른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차이 때문에 어르신이 불편함이나 놀라움을 드러내는지를 확인한다. 단순히 높임말이나 직함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존대법 변화의 사례가 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존대법 변화 사례는 '낯선 높임 표현 + 어르신의 불편함'이며, 직함에 맞춘 호칭은 일반적인 높임 표현이다.

NoteBase